

월요광장

무등산은 알고 있다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19년 12월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번 달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다. 4년이 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는 풍문이 파다했는데 그런 데 대한 조사는 착수도 안하고 말았으니 할 말이 없다. 민간인 차원의 조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끝날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들 광주시민들이야 다 알고 있으나 개별 시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이야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이 없는 무등산은 증인이 되어 주지 못한다...

니 그런 법이 악법이라면 시민들이나 전광훈 등을 어떻게 처벌하여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법으로 처벌을 요구해도 처벌하지 못한 40년. 피해자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법이 악법이라면 광주시민들의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필의 향기

개구리 울음을 듣는 밤



김향남
수필가

문득 바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하늘 가득히 울리는 크고 성성한 소리. 맹렬하게 들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기세 좋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했다. 뭐지? 설마 개구리? 고개를 갇웃거리며 필요 없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분명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으나 잊은 줄도 모른 채 있고 있던 소리, 귀가 쫄렁하도록 들었던 개구리 울음이었다...

소리를 평정해버리고서 바야흐로 개구리 왕국을 건설 중인지도 몰랐다. 희미한 어둠 속, 개구리들은 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쟁쟁하게 세를 과시했다. 진두지휘하듯 먼저 한 녀석이 울기 시작하면 나머지 녀석들도 와르르 뒤따라 울었다. 운다고 했지만 실은 짝을 찾는 구혼가라고 한다. 세상의 수컷들은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않다.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동네이기는 해도 아파트 한가운데가 아닌가. 지금은 물이 고여 있다고 해도 언제 말려버릴지 모르는 인공못이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저놈의 개구리를 시끄러워 죽겠다고 툭툭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방금도 들었지 않은가. 몇 년 전 일도 떠올랐다. 어느 학교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았는데 바로 옆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개구리들을 없애 달라는 것. 그래서 학교는 연못의 물을 빼고 개구리들의 울음을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

기고

연극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안선욱
광주산정중교사

"선생님, 저희 4·16 연극 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본 초안도 마련했거든요." 3월말, 연극 동아리 부장인 3학년 예은이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 이동철쌤도 안 계시는데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연극을 지도하고 학교 강당에서 무대 공연까지 멋지게 완성한 이동철 선생님이 올해는 다른 학교로 이동했기 때문에 연극 공연은 작년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막막했던 나는 국어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교내 연극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을 '지도교사가 없다'는 말로 일축하기에는 그동안 연극 공연이 아이들에게 선별한 협력과 성장의 경험은 엄청났다. 대부분 각색하는 작업은 지도교사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무대 미술이나 소품 마련 등 자발적으로 공연의 일부분을 맡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비록 작년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연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의 소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강렬하게 다가왔다. 더구나 올해는 4·16 10주기가 되는 해이니 아이들 스스로 공연에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학교 선생님들과 공연 날짜를 의논한 결과 4·16 추모일 하루 전날인 4월 15일, 강당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

공연 날짜가 임박하자 서로서로 소품을 챙기고 핀마이크 점검을 하고 음향에 도움을 줄 방송부를 섭외하는 등 한 편의 연극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작업들이 펼쳐졌다. 연습하는 아이들 곁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는 단지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른인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2, 3학년 학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강당에 모였다. 3주동안 정성껏 준비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모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실수 속에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려 애쓴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는 연극부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어디러리던 존재가 아니었다. 해보고 싶은 것을 해냈다는 성취감,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도약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社說

정치-행정 원팀 공조로 광주 현안 해결 기대

광주시의 미래를 결정할 현안 입법과 사업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른바 '정치-행정의 원팀'이 구성된 것으로 광주시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과 국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 민생토론회 조차 열리지 않을 정도로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광주시의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행정 집행부와 정치권이 의기 투합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7건의 입법 건의와 2028년 만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등 3건의 현안 법안을 건의했다. 또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확보 등 현안사업 12건에 대한 협조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 꼭 필요한 20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광주 민간 통합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된 해 조만간 무안군을 방문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주시가 추진중인 공항 이전 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광주공항 이전은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으로 정치권까지 나서 힘을 보탬 경우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행정이 원팀 정신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여의도 경협이 많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 증진과 신인이 역할을 분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구는 의미가 없다.

노인 일자리·환경 보호...생활 밀착 사업 눈길

광주 지역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밀착형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실생활과 접목된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등 도시공동체가 안고 있는 숙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북구시니어클럽 대장급사업단이 지난 2006년부터 위탁운영중인 광주시 북구청의 구내식당이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있는데 특히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 후 남은 반찬을 직원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판매 수익금 제공을 통한 노인 복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폐기 처리 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시민들에게 값싼 반찬 제공 등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역국, 제육김치볶음 등의 반찬은 시중가의 3분의 1수준에서 판매해 고물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실생활과 접목된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등 도시공동체가 안고 있는 숙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북구시니어클럽 대장급사업단이 지난 2006년부터 위탁운영중인 광주시 북구청의 구내식당이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있는데 특히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 후 남은 반찬을 직원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판매 수익금 제공을 통한 노인 복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폐기 처리 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시민들에게 값싼 반찬 제공 등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 재위기(1454년) 경상도와 전라도 고창·영광·함평·무안·나주 등지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며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해괴제(解怪祭)를 행하였다'고 적었다. 해괴제는 조령에서 분노한 천지신명을 위로하는 제사다. 현종때(1670년)도 호남 피해가 심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광주(光州)·강진(康津)·운봉(雲峯)·순창(淳昌) 등 네 고을이 더욱 심하였는데, 집이 흔들려 무너질 듯했고 담장이 무너져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어졌다. 말과 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으며 길 가는 사람이 다리를 기누지 못하여 놀라고 겨를이 없는 가운데 엎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런 참혹한 지진은 근래에 없던 일이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2016년 전격을 뒤흔들었던 경주 지진에 비유되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지진 기록을 분석한 '조선시대 이래 한반도 지진발생의 사·공간적 특성' 논문을 보면 모두 441건, 449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연평균

0.93건 꼴이다. 지진 발생 횟수는 경북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건, 전남 24건 등이었다. 지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고 4단계로 분류한 결과 100~150년을 주기로 활성기와 잠복기를 반복했다. 지진 규모와 강도 역시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다.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이래 지진 발생의 규모와 측면에서 볼 때 5단계에 해당하는 현재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전북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곡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문가들은 호남에서도 최대 6.0규모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0년 해남에서만 한 달 동안 미소 지진(규모 2.0 미만 지진)까지 포함해 7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재앙과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을 무시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재난사의 교훈이다. 전북 불안 지진도 예외가 아니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편집국안내, 정·집·부, 경·영·지, 사·회·부, 전·남·부